

〈서평〉

포스트모던 역사소설과 로젠버그 케이스

Sangjun Jeong, *Representing the Rosenberg Case: Coover, Doctorow and the Consequences of Postmodernism*, Seoul: American Studies Institute, 1994.

金 聖 坤

〈서울大學校 英語英文學科〉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아마도 「재현의 어려움」 또는 「재현의 위기」일 것이다. 즉 언어를 통한 리얼리티의 재현(representation)에 낙관적이었던 리얼리즘이나, 적어도 재현의 투명성을 믿었던 모더니즘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은 재현의 가능성 자체에 회의론 제기하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메타픽션(Metafiction)』의 저자 피트리샤 워(Patricia Waugh)나 『텍스트의 전략(Textual Strategy)』의 저자 호수에 하라리(Josue Harari)같은 비평가들, 또는 존 바스(John Barth)나 로버트 쿠퍼(Robert Coover) 같은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소설가들은 모두 「재현의 위기」 의식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재현의 위기」 의식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장르 중 하나는 린다 허치언(Linda Hutcheon)이 "historiographical metafiction"이라고 부른 소위 「포스트모던 역사소설」이다. 포스트모던 역사소설가들은 시가들의 편집과 취사선택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되는 역사의 허구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종래의 역사편이나 역사소설로는 이제 더이상 역사적 진실(historical truth)을 재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포스트모던 역사소설은 역사를 신성하고 불변하는 절대적 진리가 아닌, 세속적이고 가변적인 인간의 허구적 구축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습적인 역사소설과는 다르다. 그것은 물론 포스트모던 소설이 단순히 종래의 역사를 부정한다거나 역사적 사건들을 허구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포스트모던 소설이 공식적인 역사의 유효성에 회의를 제기하고, 그것의 왜곡 및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며, 그것이 제외시킨 수많은 또다른 역사의 존재를 탐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므로 포스트모던 작가들에게 있어서 역사란, 쿠퍼의 말대로 결국은 "대부분의 스토리들이 세워진 말(words)"일 뿐이며, 바스의 말대로 "우리가 만들어내가고 조형해나가는 진흙"일 뿐인, 일종의 픽션이자 언어의 구축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

고 그와 같은 인식과 작업은 곧 낡은 역사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내러티브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고 제시하려는 포스트모던 작가들에게 심각한 「새현의 위기」 의식을 가져다 주었다.

새로운 새현 방식을 통해 역사를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려는 「포스트모던 역사소설 쓰기」에는 많은 미국작가들이 참여했다. 예컨대 미국의 선국 역사를 패러디한 『연초 노매상(The Sot-Weed Factor)』의 존 바스, 선구 제국주의 역사를 비판한 『V』의 토머스 핀친(Thomas Pynchon), 1920년대와 1960년대를 대비시킨 『뎀보 짐보(Mumbo Jumbo)』의 이슈마엘 리드(Ishmael Reed), 1920년대를 새롭게 바라본 『랙타임(Ragtime)』의 E. L. 닥터로우(Doctorow), 그리고 로젠버그 케이스를 재조명한 『공개화형(The Public Burning)』의 로버트 쿠버 등은 모두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역사소설을 써낸 작가들이다. 그리고 역사를 사실과 허구의 혼합으로 보는 그들의 새로운 역사관은 노먼 메일러(Norman Mailer)의 『밤의 군대들(The Armies of the Night)』의 소재북인 「소설로서의 역사, 역사로서의 소설(History as a Novel, The Novel as History)」에서 이미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그들은 모두 쿠버의 주장대로, “결국 모든 것은 유니버설 픽션 베이킹(“universal fiction-making”)”이라는 데에, 그리고 닥터로우의 말대로, “아세 더이상 픽션과 년픽션의 구별은 없다. 다만 내러티브만 있을 뿐이다”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II

정상준교수의 저서 *Representing the Rosenberg Case: Coover, Doctorow and the Consequences of Postmodernism*은 바로 그러한 포스트모던 역사소설연구를 통해 현대 미국사회와 문화를 성찰한 심도있는 비평서이다. 자신의 비평 작업을 위해 정교수가 선택한 것은 제2의 마녀사관이라고 불렸던 1950년대의 로젠버그 케이스와 그것을 다룬 두 권의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역사소설이다. 로젠버그 케이스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들 위해 정교수는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월터 슈나이르(Walter Schneur)와 미리엄 슈나이르(Miriam Schneur)의 저서인 『사분회의 초대(Invitation to an Inquest)』, 그리고 로널드 라도쉬(Ronald Radosh)와 조이스 밀턴(Joyce Milton)의 저서 『로젠버그 파일(The Rosenberg File)』로부터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해 제시하고 있으며, 그 사건을 다룬 포스트모던 역사소설로는 닥터로우의 『다니엘서(The Book of Daniel)』과 쿠버의 『공개화형(The Public Burning)』을 텍스트로 삼아 집중 분석하고 있다.

Hiss-Chambers 사건과 더불어 매카시즘 시대의 수직스러운 산물이자, 아직도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로젠버그 사건은 1950년 1월 25일 영국의 핵물리학자 에밀 줄리우스 클라우스 폭스(Emile Julius Klaus Fuchs)가 영국 정보부에 체포되어, 자신이 원자

탄 제조 관련 기밀자료들을 소련 스파이에게 넘겨주었다고 자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폭스의 자백에 따라 그의 미국인 접선책인 해리 골드(Harry Gold)가 체포되었으며, 이어 골드의 접선책인 데이빗 그린글라스(David Greenglass)가 연행되었다. 그린글라스는 자신의 아내 루스(Ruth)와 처남 줄리우스 로젠버그(Julius Rosenberg)도 스파이 행위에 관련되었다고 밝혔고, 그의 자백에 따라 1950년 7월 17일에는 줄리우스 로젠버그가, 그리고 8월 11일에는 줄리우스의 아내 에텔 로젠버그(Ethel Rosenberg)가 각각 체포되었다.

처음에 로젠버그 부부의 죄는 가벼운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당국에 협조한 그린글라스와는 달리 로젠버그 부부는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따라서 다른 접선책의 이름을 자백하지 않았다. 청교도 시대에 마녀로 몰린 여자들은 자신이 마녀라는 것을 인정하면 사형에 처해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마녀임을 부정하고 교수형에 처해졌는데(유럽에서 마녀들은 화형이었지만 미국에서는 교수형이었다), 그 이유는 청교도 교리에 의하면 거짓증언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였기 때문이다. 로젠버그 부부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음으로써 패썹죄에 해당되었고, 그 결과는 사형선고였다. 그들의 탄원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기각되었고, 로젠버그 부부의 사형일은 1953년 6월 18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논란은 계속되었으며, 이에 1953년 6월 7일, 후에 용기있는 법관으로 칭송받게 되는 더글라스 판사는 그들의 사형집행을 유예시켰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인 6월 19일 브라우넬 법무장관과 빈슨 대심원장은 긴급회의를 열어, 당일로 로젠버그 부부를 전기의자로 보내 처형했다.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은 시종일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슈나이르와 라도쉬/밀던 같은 사람들의 저서 역시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밝히려 노력했으며, 닥터로우와 쿠버의 포스트모던 역사소설은 새로운 시각과 조명, 그리고 혁신적인 내러티브(재현 방식)를 통해 로젠버그 케이스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그것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탐색하려 했다. 정교수의 *Representing the Rosenberg Case*는 이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해, 매카시즘 시대의 미국 사회와 문화의 음영을 심층 분석하고 성찰한 값진 지적 작업이다.

정교수의 저서는 특히 국내학자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최초의 로젠버그 케이스 연구서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왜냐하면 로젠버그 부부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카우프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로젠버그 부부의 반역행위가 결국 한국전쟁을 일으키게 했고, 그 결과 50,000명의 미군들이 한반도에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원자탄 제조능력을 갖춘 소련이 비국과의 세력경쟁에 자신감을 갖고 북한의 전쟁도발을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로젠버그 부부 케이스는 한국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젠버그 케이스에 대한 국내 학자의 연구서가 이제야 나오게 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이 책에서 정교수는 로젠버그 케이스에 대해 인상적일 만큼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해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정교수의 예리한 비판 의식이다. 예컨대 그는 로젠버그 부부가 한국전쟁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카우프만 판사의 언급에 대해서도 회의를 제기한다. 그는 FBI나 검찰 측에서 로젠버그 부부에 대해 국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카우프만 판사가 그들에게 시형선고를 내린 저의를 날카롭게 지적한다(카우프만은 자신의 정치적 출세와 반공정신의 과시, 그리고 같은 유대인으로서 동성적이라는 비난의 회피를 위해 국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정교수는 또 『뉴욕 타임스』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당시 『뉴욕 타임스』가 미합중국 검사 어빙 세이폴(Irving Saypol)의 재판개정 논고를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뉴욕 타임스』가 검사의 논고에 동의한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지적한다. 정교수는 세이폴 검사의 논리와 『뉴욕 타임스』의 보도 태도가 헐리우드 서부영화의 전형을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적절한 은유이자 정확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서부영화에서 커뮤니티의 질서와 평화는 언제나 악한에 의해 위협을 받고, 악한은 정의의 사자의 용기를 받아 결국 커뮤니티에는 평화가 회복된다. 로젠버그 케이스의 경우에도, 악역은 로젠버그 부부가, 그리고 정의의 사자의 역할은 FBI가 맡았으며, 『뉴욕 타임스』는 그 선거과정을 마치 서부영화의 스토리처럼 묘사했다는 것이다. 사실 에드가 후버(J. Edgar Hoover)가 미국인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 FBI 국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미국인들의 서부영화적 의식구조와 언론의 이미지 만들기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교수는 『뉴욕 타임스』지의 그와 같은 보도가 사실은 많은 경우 잘못된 애국심과 민족주의에 의해 왜곡되고 과장된 것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허구적(fictional)인 것이었다고 말한다. 즉 언론의 보도 속에서 사실(fact)과 허구(fiction)가 뒤섞여, 그 둘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와같은 인식 속에서 정교수는 로젠버그 케이스가 사실은 FBI에 의해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즉 이차대전 이후, 핵무기 보유로 인해 세계의 핵제모니를 독차지하던 미국이, 원자탄 제조를 할 수 있게 된 소련 때문에 자신의 독점적 위치를 내어주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좌절감과 분노를 달래고 비난을 막기 위해 로젠버그 부부를 속죄양으로 삼아 처형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교수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모든 것을 정부의 조작으로 보는 윌터 슈나이르와 버리엄 슈나이르의 『사문회의 초대』도 분석한다. 서부영화의 영웅신화를 전도시켜, 로젠버그 부부를 냉전시대 히스테리아의 희생양으로 보는 이 책은 마치 케네디 암살사건의 공식 보고서인 『웬젠 보고서』에 대항하는 짐 개리슨 검사의 저서 『암살자들의 뒤를 쫓아(On the Trail of the Assassins)』처럼 정반대의 시각으로 로젠버그 사건을 재조명해주고 있다. 정교수는 또 라도쉬와 말틴의 저서 『로젠버그 파일』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로젠버그 부부를 도와주지 않고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공산당이 악역을 맡는다. 즉 당시 공산당은 로젠버그 케이스를 공산주의를 위한 순교로 미화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리고 체코에서 발생한 루돌프 슬란스키(Rudolf Slansky) 일파 숙청사건으로부터 국제여론을 돌리기 위해, 거의 구명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저서에서 정교수는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침이 없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시각과 다양한 자료를 탐구하고 제시해주는 포스트모던 비평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위 새가지 자료를 모두 비판하면서 또 동시에 그것들을 포용한다. 진리는 배열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저자는 가치판단을 유보한 채, 다만 수많은 실마리들과 새로운 가능성들을 독자들에게 제공해줄 뿐이다. 진리 발견은 궁극적으로 독자들의 몫으로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정교수의 태도는 마치 『JFK』를 만든 올리버 스톤(Oliver Stone)의 태도와도 같다. 그리고 독자들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정교수는 적절하게도 로젠버그 케이스를 포스트모던 역사관으로 재조명하고 재해석한 닥터로우의 『다니엘서』와 쿠버의 『공개화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 책의 제5장 “Everything is Elusive”와 제6장 “Randomness as Design”은 바로 닥터로우와 쿠버의 포스트모던 인식과 재현에 의한 로젠버그 케이스 「다시보기」에 대한 정교수의 책임기가 시도되고 있는 곳이다. 정교수에 의하면, 닥터로우와 쿠버는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 아닌, 미국이 로젠버그 부부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탐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주된 관심은 로젠버그 부부가 과연 부끄러웠는가 아니면 유죄였는가에 있다기보다는, 그들을 그렇게 희생양으로 만든 당시의 히스테리아…즉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의식(ritual)”…에 있다. 그러한 “의식(儀式)” 속에서 역사는 일종의 픽션이 되며, 과거에 대한 불완전한 기록이 된다. 닥터로우와 쿠버는 공식적인 역사의 유효성과 완전성에 회의를 표명하며, 배제되어 주변부로 밀려난 또다른 역사를 탐구해 제시한다. 그들의 소설에서 또 다른 역사는 공식적인 역사에 대한 수많은 다른 시각과 다른 해석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관을 통해 이들은 미국인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탐색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악몽으로 변질되어버린 「미국의 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로젠버그 케이스에 대한 정교수의 성찰은 제7장에 오면 “사실과 허구(fact and fiction)”의 구별의 모호함에 대한 논의로 확대된다. 그러한 논의를 위해 정교수는 조작된 기사라는 이유로 플리처상이 취소된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지의 재닛 쿡(Janet Cooke)과 『뉴욕커(The New Yorker)』지의 알레스테어 리드(Alastair Reid)의 기사, 그리고 윌리엄 스타이론(William Styron)의 『넛 터너의 고백(The Confessions of Nat Turner)』과 닥터로우의 『랙타임(Ragtime)』을 분석한다. 제8장에서는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의 메타역사론(metahistory)과 존 매키(John Mackey)의 반리얼리즘(anti-realism)론, 그

리고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의 신실용주의(new pragmatism)가 리얼리티와 팬티시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III

그러므로 *Representing the Rosenberg Case*는 로젠버그 케이스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사실과 허구(fact and fiction), 새로운 역사관, 재현의 문제, 다원주의(pluralism), 그리고 진리의 문제—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작업을 위해 정교수는 수많은 포스트모던 텍스트들을 읽고,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인용해 논의를 전개시켜나가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즐거움 중의 하나는 저자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자료들의 상호연관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명료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제1장에서 제3장에 이르는 서두 부분에서 제공되고 있는 풍부한 참고문헌들과 인용들은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섭렵했는가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동시에 그것은 이 책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의 같은 다양한 자료들과 논의들이 때에 따라서는 서로 연결되는 응집력을 결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일반론인 제1장과 리처드 로티의 신실용주의와 새로운 이론들을 논하는 제2장,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각기 다른 역사관을 다룬 제3장, 그리고 다시 로티가 나오는 제8장 등이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핏 독립성을 가진 별개의 논문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Representing the Rosenberg Case*라는 제목과는 달리 모두 아홉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로젠버그 케이스만을 다룬 장은 세 장(4, 5, 6장)밖에 없는 점도 독자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장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로젠버그 케이스를 향해 결집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포스트모던 역사소설의 재현」이라는 보다 더 큰 주제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quantum physics, ethnography, anti-foundationalism, new pragmatism, the Sacco and Vanzetti case 등은 이 책의 범위가 얼마나 포괄적이며 이 책의 내용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교수는 특별히 열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선봉자나 옹호자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여러 속성들이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예컨대 결론에서 그는 다원주의가 또하나의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를 산출할 수도 있으며, 포스트모던 소설의 열린 결말이 자칫 허무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의 장점은, 그와 동시에 다원주의와 열린 결말이 궁극적으로는 해방의 에너지와

반허무주의일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인정하는 데에 있다. 양극을 배격하는 정교수의 그와 같은 두 겹의 시각은 그가 진정한 포스트모던적 시각과 비평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의 그와같은 태도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저서를 설득력있고 균형잡힌 연구서로 만들어주고 있다. *Representing the Rosenberg Case*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본격 연구서가 아직 일천한 이 시기에 나온, 환영할 만한 중요한 학문적 업적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이 문학작품과 문예사조의 분석을 통한 제대로 된 「미국문화 읽기」의 한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교수의 「미국문화 읽기」는 기본적으로 「역사 재조명」에 근거하고 있고, 그의 그러한 지적 작업은 궁극적으로 「역사 청산」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문화 읽기」로 확대된다. 미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연구서와, 한국인들의 투철한 역사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때, *Representing the Rosenberg Case*를 읽는 즐거움도 바로 거기에 있다.